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남 159호 농업정보

주간 2017. 11. 13. ~ 11. 19.



전남 농업기술원

한국 - 이스라엘, 4차산업 농업분야 협력방안 모색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 오전과 17~18일 비가 오겠고,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15일 오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으며 그 밖의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9도, 최고기온: 13~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1~2mm)보다 조금 많겠음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마늘·양파 가격전망 및 재배의향
- ▶ 대파·건고추 가격 및 생산전망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0

- ▶ 고흥군,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통해 400만달러 계약 성사
- ▶ 한국산 젓소 유전자원 말레이시아 첫 수출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4

- ▶ 영양과 기능성 성분이 우수한 섬초 수확시기
- ▶ 오이 유기재배 시 웃거름용 액비 제조방법과 웃거름방법
- ▶ 포도 유기재배 과원의 화이트클로버 녹비효과 증진 방법
- ▶ 아로니아 혼합 액상홍차 제조방법
- ▶ 빅데이터 활용 지역농업 경영모델 개발 본격 추진
- ▶ 뚝은감 대봉 과피 흑변 발생원인 구명 나서
- ▶ 잡곡밥 거친 식감, 소주 한잔으로 잡아요
- ▶ 사과·배즙 가미한 감식초, 기능성·풍미 좋아
- ▶ 냉동 농식품 빠르고 균일하게 해동하는 기술 개발
- ▶ 축산 스마트팜 장치, 설치 전 알아두세요
- ▶ 국내산 풀사료, 품질 좋아졌다
- ▶ 도시텃밭의 건강한 겨울나기, 지금 시작하세요

6

정책 동향 29

- ▶ 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및 제도개선
- ▶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 발령
- ▶ AI 차단 위해 위험지역 가금농가 사육 제한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3

- ▶ 여수시,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 ▶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퇴비 공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
- ▶ 담양군, 2017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수매
- ▶ 보성군, 보성쪽파 김장철 맞아 수확 한창
- ▶ 장흥군, 사람 10명 뭉 하는 양파이식기 시연
- ▶ 해남군,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실시
- ▶ 장성군, 광주농산물유통센터서 농·특산물 전시 판매

8 해외 농업정보 40

- ▶ 미국, FDA 글루텐프리 제품 표기 규정 준수 검사
- ▶ 뉴질랜드, 과일과 야채 부족에 직면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11. 13. 시카고 선물거래소)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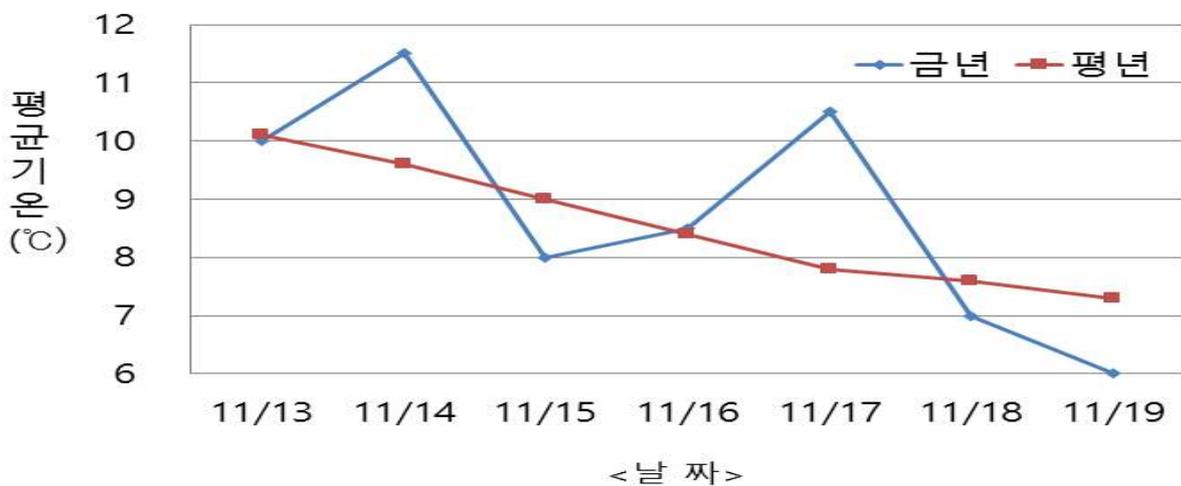
- ▶ 11월 이달의 6차 산업인, 농업회사법인(주) 안복자한과
- ▶ 전남쌀,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서 전국 최고 인정
- ▶ 전남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
- ▶ 청림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1 주간 기상 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11월 13일 ~ 11월 19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8.8℃ (평년대비 0.2℃ 높음)
- 최고기온 : 13.4℃ (평년대비 0.4℃ 낮음)
- 최저기온 : 4.1℃
- 강수량 : 1.4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평년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 균	8.8	8.5	0.2	13.4	13.9	-0.4	4.1	4.1	0.0	1.4
11. 13.(월)	10.0	10.1	-0.1	16.0	15.4	0.6	4.0	5.8	-1.8	1.6
11. 14.(화)	11.5	9.6	1.9	15.0	14.9	0.1	8.0	5.2	2.8	1.6
11. 15.(수)	8.0	9.0	-1.0	12.0	14.3	-2.3	4.0	4.6	-0.6	1.4
11. 16.(목)	8.5	8.4	0.1	14.0	13.6	0.4	3.0	4.0	-1.0	1.3
11. 17.(금)	10.5	7.8	2.7	14.0	13.1	0.9	7.0	3.5	3.5	1.5
11. 18.(토)	7.0	7.6	-0.6	12.0	13.0	-1.0	2.0	3.0	-1.0	1.4
11. 19.(일)	6.0	7.3	-1.3	11.0	12.8	-1.8	1.0	2.6	-1.6	1.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11월 13일 ~ 11월 19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9.1℃ (평년대비 0.3℃ 높음)
- 최고기온 : 12.6℃ (평년대비 2.0℃ 낮음)
- 최저기온 : 5.7℃ (평년대비 0.2℃ 낮음)
- 강수량 : 1.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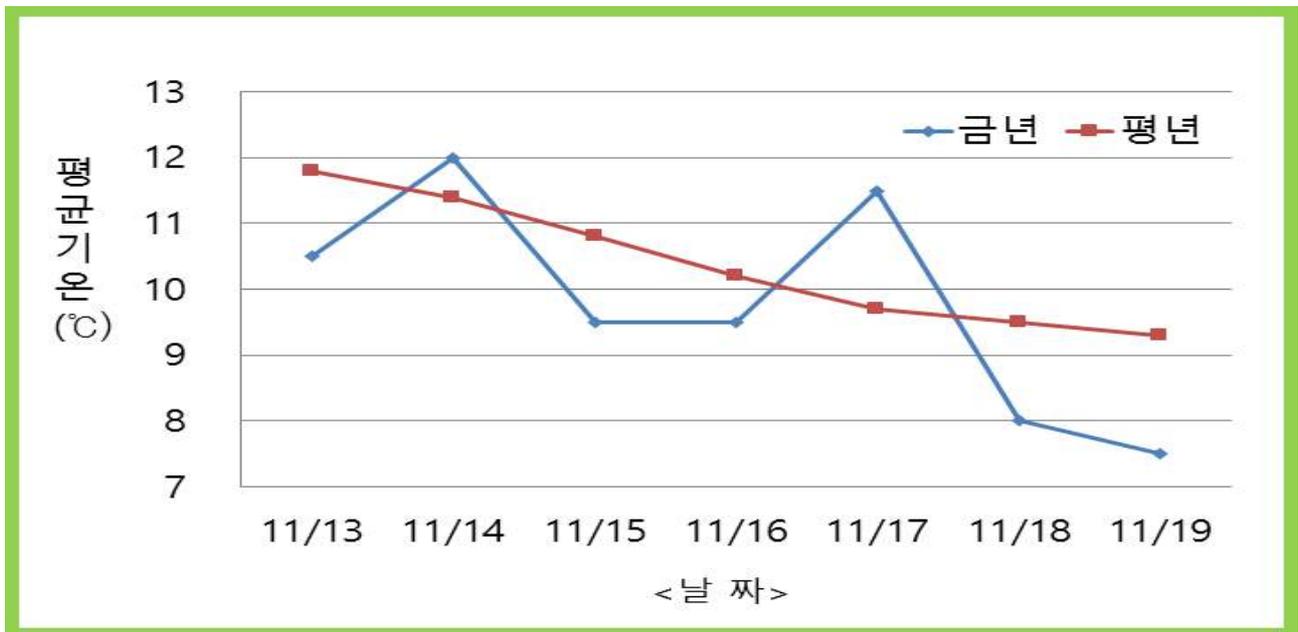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9.1	9.7	0.3	12.6	14.6	-2.0	5.7	5.9	-0.2	1.2
11. 13.(월)	10.0	11.2	5.0	15.0	16.0	-1.0	5.0	7.5	-2.5	1.0
11. 14.(화)	11.5	10.7	0.8	14.0	15.5	-1.5	9.0	6.9	2.1	0.9
11. 15.(수)	8.5	10.1	-1.6	11.0	15.0	-4.0	6.0	6.3	-0.3	1.1
11. 16.(목)	9.0	9.5	-0.5	13.0	14.4	-1.4	5.0	5.7	-0.7	1.1
11. 17.(금)	11.0	9.1	1.9	14.0	13.9	0.1	8.0	5.3	2.7	1.4
11. 18.(토)	7.5	8.9	-1.4	11.0	13.8	-2.8	4.0	4.9	-0.9	1.3
11. 19.(일)	6.5	8.7	-2.2	10.0	13.7	-3.7	3.0	4.6	-1.6	1.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11월 13일 ~ 11월 19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9.8℃ (평년대비 0.6℃ 낮음)
- 최고기온 : 12.9℃ (평년대비 1.4℃ 낮음)
- 최저기온 : 6.7℃ (평년대비 0.5℃ 낮음)
- 강수량 : 0.9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평년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 균	9.8	10.4	-0.6	12.9	14.2	-1.4	6.7	7.2	-0.5	0.9
11. 13.(월)	10.5	11.8	-1.3	15.0	15.5	-0.5	6.0	8.7	-2.7	1.1
11. 14.(화)	12.0	11.4	0.6	14.0	15.2	-1.2	10.0	8.3	1.7	0.9
11. 15.(수)	9.5	10.8	-1.3	12.0	14.6	-2.6	7.0	7.7	-0.7	0.5
11. 16.(목)	9.5	10.2	-0.7	13.0	14.1	-1.1	6.0	7.0	-1.0	0.6
11. 17.(금)	11.5	9.7	1.8	14.0	13.6	0.4	9.0	6.5	2.5	1.1
11. 18.(토)	8.0	9.5	-1.5	11.0	13.4	-2.4	5.0	6.2	-1.2	1.1
11. 19.(일)	7.5	9.3	-1.8	11.0	13.2	-2.2	4.0	5.9	-1.9	1.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 마늘 가격전망 및 재배의향

□ 가격전망 : 11월 간마늘 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망

- 11월 간마늘 도매가격은 본격적인 김장철 수요로 전월 대비 높은 상품 kg당 6,7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11월 간마늘 가격은 2017년산 생산량 및 입고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으나, 평년(5,850원)과 전월(6,490원)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의향 : 2018년산 재배의향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18년산 마늘 재배의향 면적은 대서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4% 감소하나, 난지형이 6% 증가하며, 난지형 가운데 대서종은 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양파 가격전망 및 재배의향

□ 가격전망 : 11월 가격 전월 대비 보합세 전망

- 11월 양파의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상품 kg당 1,2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의향 : 2018년 양파 재배의향 증가 전망

- 2018년산 양파 재배의향은 전년보다 7% 증가, 품종별로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이 각각 7%씩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7년산 조생종 포전거래가격과 중만생종 수확기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대파 가격 및 생산전망

□ 가격전망 : 11월 가격 전월 대비 보합세 전망

- 11월 대파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6% 증가하고, 단수가 3% 증가하여 전년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으나, 전월과 비슷한 1,400원/kg 내외로 전망된다.

□ 생산전망 : 겨울대파 재배면적 증가 및 생육 회복

-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평년 대비 6% 증가한 3,542ha로 조사되었다. 출하면적은 겨울대파 주산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고추 가격 및 생산전망

□ 가격전망 : 11월 가격 전월 대비 약보합세 전망

- 11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2017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으나, 정부비축물량 방출로 전월(13,940원) 대비 약보합세로 전망된다.

□ 생산전망 : 2017년산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2017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2016년산보다 12% 감소한 2만 8,329ha이다.
- 고추의 생육 조사결과, 생육초기 가뭄과 여름철 잦은 강우로 인한 병해로 전년 대비 생육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 생육이 나빠 10월 중순에 수확을 종료한 농가는 90%로 전년 동기(83%)보다 7%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고흥군,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통해 400만달러 계약 성사

- 고흥군은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동일면 소재 포스코패밀리 수련원에서 『2017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관계 문제 대두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기업의 『수출 르네상스』로의 도약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업체별 상담과 함께 청정지역 고흥의 농수산물을 소개함으로써 세계시장 진출 확대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 상담회에 초청된 6개국 8명의 해외 바이어들은 상담 후 업체 방문을 통한 견학과 체험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김·미역 등 수산물과 유자·석류 등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 상담결과 중국 대련호천공급사슬관리유한공사(대표 성만군)외 2개 업체와 400만달러 MOU를 체결과 현장계약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바이어와 참가업체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출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고흥군



■ 한국산 젖소 유전자원 말레이시아 첫 수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부)는 11월 6일 말레이시아와 한국산 젖소 유전자원(정액) 수출을 위한 검역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우리 젖소 유전자원은 지난 '14년부터 아프리카 우간다로 수출되었으며, 이번 한·말레이시아 정부 간 검역 협의 완료로 아시아 대륙으로도 수출 시장이 확대된 것이다.
- 농협에 따르면, 올해 11월 중 냉동 정액 약 1,500마리분(12천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연간 2만마리분(200천달러)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젖소 개량 검정 프로그램 등 현지 기술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 내 젖소 개량이 증가할 경우 우리 사료, 동물 약품 및 낙농 기자재 등 낙농 연관 사업의 동반 진출도 기대된다.
-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젖소 개량 기술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지난 30여년간 한국형 우수 젖소 유전자원 생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 투자의 결과라고 밝혔다.
- 참고로, 농협 관계자는 우리 젖소 정액은 우간다로 '14년부터 약 11천마리분(13천달러)가 수출되면서 젖소 성감별 키트 600세트(24천달러)가 동반 수출되었고, 동물 약품(6개 품목)도 '18년 첫 수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11. 1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13)	1주일전 (1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8,600	38,000	34,800	32,400	40,833	↑ 19.1	↓ 5.5
	콩(백태)	35kg	164,800	164,800	172,600	161,250	165,217	↑ 2.2	↓ 0.3
	고구마(밤)	10kg	25,100	25,000	24,480	25,200	21,693	↓ 0.4	↑ 15.7
	감자(수미)	20kg	42,400	40,200	43,440	27,700	24,487	↑ 53.1	↑ 73.2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620	540	-	735	527	↓ 15.6	↑ 17.6
	양배추	10kg	7,400	8,000	9,640	12,950	6,407	↓ 42.9	↑ 15.5
	오이(다다기계통)	10kg	19,000	16,667	18,933	24,500	24,357	↓ 22.4	↓ 22.0
	애호박	20개	13,400	14,000	12,480	20,850	20,777	↓ 35.7	↓ 35.5
	건고추(화건)	60kg	1,290,000	1,310,000	1,372,000	580,000	782,667	↑ 122.4	↑ 64.8
	풋고추	10kg	39,800	43,400	33,200	75,650	50,120	↓ 47.4	↓ 20.6
	마늘(깐마늘)	20kg	130,000	131,400	129,000	145,000	117,413	↓ 10.3	↑ 10.7
	양파	20kg	25,200	25,000	24,680	20,800	21,760	↑ 21.2	↑ 15.8
	당근	20kg	32,800	34,200	59,800	67,050	35,813	↓ 51.1	↓ 8.4
	대파	1kg	1,720	1,740	1,892	2,305	1,792	↓ 25.4	↓ 4.0
	파프리카	5kg	18,600	23,000	22,600	24,600	24,293	↓ 24.4	↓ 23.4
	토마토	10kg	24,400	25,000	27,480	30,100	26,513	↓ 18.9	↓ 8.0
	방울토마토	5kg	20,600	21,600	21,720	26,550	14,347	↓ 22.4	↑ 43.6
과 류	사과(후지)	10kg	33,200	34,600	-	38,100	39,824	↓ 12.9	↓ 16.6
	배(신고)	15kg	33,800	33,800	40,120	35,450	39,203	↓ 4.7	↓ 13.8
	감귤	10kg	22,200	20,800	-	19,700	18,140	↑ 12.7	↑ 22.4
	단감	10kg	24,000	23,200	-	17,550	17,634	↑ 36.8	↑ 36.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13)	1주일전 (1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498,000	498,000	510,000	513,600	522,733	↓ 3.0	↓ 4.7
	느타리버섯	2kg	12,800	12,800	13,000	15,500	12,000	↓ 17.4	↑ 6.7
	새송이버섯	2kg	8,000	8,200	8,120	9,100	8,240	↓ 12.1	↓ 2.9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149	8,375	8,390	8,057	7,072	↑ 1.1	↑ 15.2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54	1,868	2,208	1,985	1,789	↓ 1.6	↑ 9.2
	닭고기	1kg	5,184	5,130	4,997	5,383	5,777	↓ 3.7	↓ 10.3
	계란(특란)	30개	5,824	5,819	5,477	5,660	5,678	↑ 2.9	↑ 2.6
	우유	1리터	2,520	2,520	2,517	2,528	2,530	↓ 0.3	↓ 0.4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11. 13.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42 천원	5,541 천원	5,522 천원	↓ 1.8	↓ 1.4
	거세	6,447 "	6,796 "	6,146 "	↓ 5.1	↑ 4.9
송아지 (6~7월)	암	2,988 "	2,929 "	2,567 "	↑ 2.0	↑ 16.4
	수	3,694 "	3,507 "	3,156 "	↑ 5.3	↑ 17.0
육우(600Kg)		3,114 "	2,953 "	2,998 "	↑ 5.5	↑ 3.9
돼지(110kg)		361 "	344 "	357 "	↑ 4.9	↑ 1.1
육계(원/kg)		1,619 원	1,455 원	1,588 원	↑ 11.3	↑ 2.0
계란(원/특란10개)		1,323 "	1,316 "	1,242 "	↑ 0.5	↑ 6.5
생체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영양과 기능성 성분이 우수한 섬초 수확시기

□ 배경 및 필요성

- 섬초에 대한 과학적인 영양·기능성 성분 분석 자료가 없음
- 섬초의 영양·기능성 평가로 식품적 우수성 평가 및 차별화 도모
- 섬초의 적정 수확시기 설정을 위한 영양 및 기능성 성분 분석이 필요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섬초의 수확 시기별 영양성분
 - 1월 섬초 : 당도 13.7°Brix, 당 함량은 3.608g/100g으로 높으며, 비타민 C와 E, 식이섬유 함량이 가장 높음
- 섬초의 수확 시기별 기능성 성분
 - 1월 섬초 : 총엽록소,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우수
 - 4월 섬초 : 총페놀, 루테인, 항산화 활성 우수

□ 기대 및 파급효과

- 소비자에게 섬초의 영양 및 기능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
- 섬초의 영양학적 우수성 홍보 및 조리·가공 제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지수현, 강정화, 이유석, 이선경, 조경숙

■ 오이 유기재배 시 웃거름용 액비 제조방법과 웃거름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오이 유기재배에 대한 웃거름방법이 확립되지 않음
- 오이 재배교본에 유기재배 준비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액비 제조방법

- 액비통에 물 500L를 채우고 유기질비료(구아노 90, 토탄 9, 해조류 추출물 1%) 100kg을 폴리비닐에 20kg씩 5개에 나누어 담고 줄에 매달아서 통 바닥에 닿지 않게 넣는 후 1개월 이상 녹여낸다.

○ 웃거름방법

- 정식 20일후부터 5일 간격으로 액비 20~30L/10a, 황산가리고토 비료(공시-1-1-122) 3.8kg/10a를 온수에 녹여서 관수할 물에 희석하여 관주한다.



【제조 액비】



【시험포장 전경】

□ 기대 및 파급효과

- 오이 유기재배 시 웃거름방법 확립으로 안정 생산에 기여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고숙주, 김효정, 이진희, 마경철, 최덕수

■ 포도 유기재배 과원의 화이트클로버 녹비효과 증진 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포도 유기재배에 적합한 녹비작물로 선발된 화이트클로버의 비료 효과 증진을 위한 관리방법 구명 필요
- 포도 유기재배 과원의 녹비작물 이용 시 녹비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 예취 횟수 및 적정 유기질 비료 공급량 구명 필요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녹비작물 파종시기
 - 10월 중·하순 파종하고 이듬해 3월 피복율이 낮거나 동해에 의해 생육이 저조할 때 추가 파종
- 녹비작물 예취시기
 - 유기재배 포도과원의 생육시기를 고려하여 개화 후 이용할 수 있도록 3회(4월 중순, 6월 상순, 7월 하순) 예취
- 유기질 비료 살포 : 검정시비량의 50%의 유박비료를 살포

□ 기대 및 파급효과

- 화이트클로버 3회 예취 시 10a당 수량 170kg 증수
- 경제성 분석 : 소득 증가액 503,000원/10a



【녹비작물 화이트클로버 및 유기 포도 착과상황(2015~2016)】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병삼, 조경철, 윤봉기

■ 아로니아 혼합 액상홍차 제조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아로니아 재배 및 생산량('13년)
 - 전국 336.4/전남 22.5ha(6.7%), 전국 670/전남 44톤
 - 아로니아 생산량 670톤으로 과잉과 저장성 문제로 단순 제품 위주 소비량 한정
- 젊은층 대상 음용 편리한 액상차 개발로 홍차와 아로니아 부가가치 향상

□ 품종 주요특성

- 아로니아 혼합 액상홍차 제조과정
 - 1단계(추출) : 홍차 12kg + 물 50L(90℃, 3시간) 추출물 30L
 - 2단계(당배합) : 홍차추출물 1.0L(27.61%) + 액상과당 2.3L(64.42%)
 - 3단계(액상차 제조) : 당배합(22%) + 오렌지 1.84, 사과액기스 4.6, 구연산 0.46, 홍차향 0.5(7.97%), 아로니아 원액 15% 액상차 제조
- ※ 음용방법 : 액상차 + 물 5배 희석, 13°Brix, 맛과 향, 색 양호



【당배합 과정】



【액상차 제조】

□ 기대 및 파급효과

- 아로니아 혼합 액상홍차 생산으로 부가가치 향상
 - 아로니아(4,000원), 엽차(8,000원) → 혼합액상차(20,000원/kg)
- 기존 아로니아 분말, 과즙, 농축액 → 혼합 액상차 제품 상품화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최 정, 김영옥, 이보배, 오봉운, 기광연

■ 빅데이터 활용 지역농업 경영모델 개발 본격 추진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유망상품 및 작부체계 개발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농업 경영모델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15년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인 농가 비중은 50.3%이고 도시 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4.4%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따라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기상환경의 변화로 작물의 생육 가능 지역이 확대되고 주산단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에 적합한 유망 상품과 작목을 발굴하여 농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은 소비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망상품을 발굴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농업 개발에 필요한 농업관련 빅데이터로는 환경(토양, 기상), 생산(기술정보, 경영체DB, 소득자료), 유통(경락가격, 출하정보 등), 소비(소비자 패널 자료 등) 등이 이용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김덕현 박사는 “농식품 생산성 향상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 빅데이터 활용 유망상품 및 작부체계 개발



■ 뽕은감 대봉 과피 흑변 발생원인 구명 나서

- 피해 경감 방법 연구를 통해 농가피해 최소화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뽕은감 『대봉』에 많은 피해를 입혀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과피 흑변 발생원인 구명에 나섰다.
- 뽕은감 대봉의 과피 흑변 증상 발생원인은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과수원의 지형에 따라 통풍이 불량한 북쪽방향의 과수원에서 발생이 심하며 초생재배 시 예초를 자주 해주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된다.
- 또한 여름철 햇볕데임 현상으로 과피가 손상을 입었을 때도 발생되며, 잎의 움직임에 의해서 과피가 상처를 받으면 그 현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 그 외에도 고온조건에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되며 특히 9월 이후의 석회보르도액 살포도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조건이 아닌 과수원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잡곡밥 거친 식감, 소주 한잔으로 잡아요

- 밥물에 소주 한잔, 식감기능성 성분·항산화 활성 높아져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잡곡밥을 지을 때 밥물의 10%를 소주와 같은 발효주정(알코올 96%)으로 맞추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밝혔다.
- 또한 폴리페놀(polyphenol)·플라보노이드등의 기능성성분과 항산화 활성이 비슷하거나 더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 이렇게 지어진 잡곡밥은 알코올 성분이 남지 않아 냄새가 안 나고 풍미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하게 굳는 노화도 늦어진다.
- 일반 가정에서 잡곡밥을 지을 때 2인 기준으로 밥물에 소주 약 두 잔을 첨가하면 잡곡의 경도가 낮아져 훨씬 부드러운 잡곡밥을 맛볼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이 새로운 폴리페놀 성분의 생성을 촉진시켜 잡곡밥의 항산화 성분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사과·배즙 가미한 감식초, 기능성·풍미 좋아

- 경북농업기술원은 경북지역 특산물인 뽕은 감 수확기를 맞아 향을 개선하고 기능성을 높인 감식초 제조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 감식초는 초산 함량이 2.6% 이상으로 다른 식초의 4%에 비해 다소 낮으며 유기산을 다량으로 함유해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고 신진대사 촉진, 노폐물 배출 및 체내 지방축적 억제 등 다양한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조미용 보다는 음료용 소비가 높은 편이다.
- 그러나 감식초 제조과정에서는 낮은 초산함량과 장기간 발효로 인해 이상발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이상한 맛을 내거나 군내와 같은 이취발생이 쉬운 특성을 가진다.
- 따라서 도농업기술원에서는 감식초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풍미를 더하고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천연 과즙을 첨가한 감식초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 감식초에 사용 가능한 과즙은 사과즙과 배즙으로 감무게의 5~15% 정도를 첨가해 발효하게 되면 이취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인 아세트인(acetoin)의 함량은 줄어들고 과일향(아이소아밀 아세테이트) 함량이 늘어나면서 풍미가 좋은 감식초를 제조할 수 있다.
- 특히 사과즙을 첨가하는 경우, 페놀산과 같은 기능성 물질의 함량도 증가시키며 무첨가 감식초에 비해 높은 항산화능도 가질 수 있다.
- 한편, 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식초의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천연 과즙 함유 식초뿐만 아니라 기능성을 가미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초 제조방법을 개발해 앞으로 경북도 내 가공업체에 이전할 계획이다.

* 출처 : 경북농업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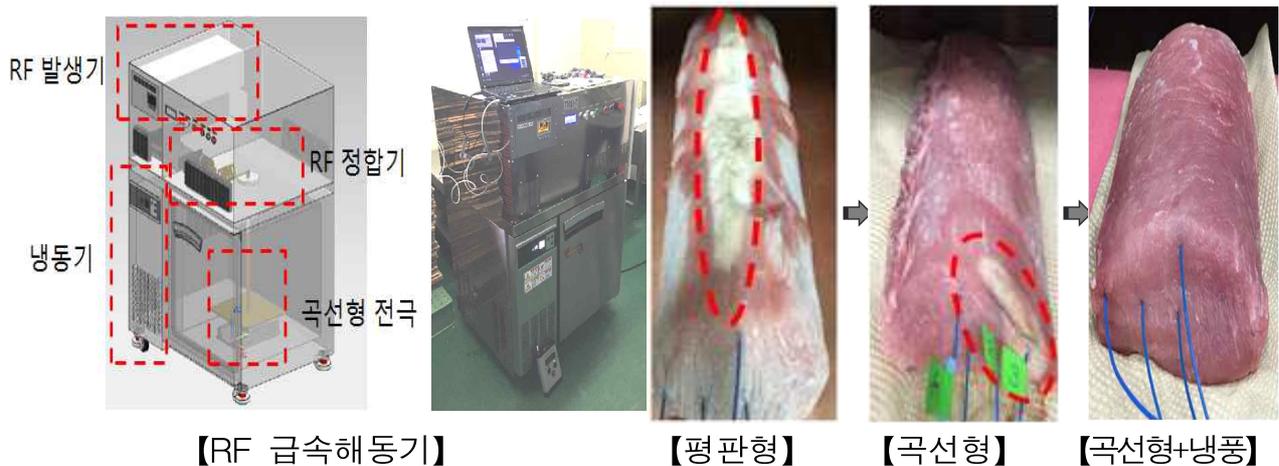
■ 냉동 농식품 빠르고 균일하게 해동하는 기술 개발

- 라디오파(RF)활용 균일 급속 해동기술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냉동 농식품을 단시간에 균일하게 해동하여 그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라디오파(RF) 해동기술』을 개발했다.
- 이번에 개발한 라디오파 해동기술은 해동할 때는 열을 가해야 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깨고 겉은 얼리면서 속은 전자파로 가열하여 내부와 외부가 균일하게 해동되도록 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돈가스 원료인 원기둥 형태의 돼지고기 등심을 해동하는데 적합한 전극 기술도 개발했다.
- 라디오파 해동기는 프랑스 등에서 2010년 이전부터 도입되어 사용 중이나 모서리 부분이 먼저 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 이번 연구 결과 돈가스 원료육을 관행적인 방법으로 해동시켰을 때 하루(24시간)가 걸리던 해동시간이 5분으로 단축됐다.
- 농산물의 경우 세포 구조가 육류와 달라서 냉·해동에 매우 취약한데, 동일하게 냉동한 농산물을 상온에서 해동하는 것과 비교하여 해동 시간은 1/6로 단축하고 품질은 유사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얻었다.
- 수산물인 냉동 참치는 육즙손실이 1% 정도로 관행적인 해동 방법과 유사했지만, 해동시간이 90% 이상 단축됐다.

- 돼지고기 등심은 약 74%가 수분으로 비타민, 아미노산 등 수용성 영양분이 녹아있는데 냉·해동 시 이러한 영양분이 포함된 육즙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 라디오파 해동기술을 이용해 해동한 돼지고기 등심으로 돈가스를 제조해 관행 제품과 관능 비교한 결과 맛, 다즙성, 부드러운 정도 등 전반적인 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식육 가공공장이나 학교급식소와 같은 중규모 식당에서 원료육을 빠르게 해동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은 라디오파 해동기술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한국농업기계학회가 발행하는 『바이오시스템공학』 과 『국제식육과학지(MEAT SCIENCE)』 등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했고, 출원된 특허에 대한 기술 이전도 완료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RF 급속해동기】

【평판형】

【곡선형】

【곡선형+냉풍】

■ 축산 스마트팜 장치, 설치 전 알아두세요

- 설치 농가나 업체 둘러보고 가축은 기계 적응훈련 필요해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축산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스마트팜의 주요 장치와 도입 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2016년부터 한우·젓소·돼지·닭 농장에 각종 환경 센서(감지기)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비롯한 스마트 사양관리 장치를 도입해 1세대 스마트팜 모델 농가를 구축하고 스마트 장비 시험·교육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한우·젓소농가가 도입한 대표적인 장치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로봇 포유기, 소의 발정 여부를 알려주는 발정 탐지 장치, 사료 자동 급이기 등이다.
- 돼지 농가에는 개체별 정밀관리가 가능한 임신돼지 사육 장치와 어미돼지 자동 사료 급이기, 비육돼지의 체중을 측정해 출하 칸으로 선별해 주는 장치 등이 있다.
- 양계 농가는 사료·음수 관리 장치, 달걀 집란 관리 시스템 등이 도입돼 가동 중이다.
- 축산 스마트팜 ICT(정보통신기술) 장치를 농장에 설치하려면 도입 초기 가축이 기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 농장주가 전자식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방법, 사료 주는 방식을 새로 배우는 것처럼 가축에게도 이 같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 한 번에 모든 것을 조작하고 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작동 오류, 기계 고장이 나타날 수 있어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조작과 운용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미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구축이 잘 된 스마트팜 농가나 업체 등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 ICT 장비는 고장이 나면 사후관리(AS)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본 수리 정도는 직접 할 수 있도록 장비에 대해 이해하고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축종별 주요 ICT 장치에 대해 실제 사진과 설치 효과를 정리한 『한국형 스마트 축산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
- 축종별 축산 스마트팜의 주요 시설·장비와 확산 사업 지원 정책, 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신기술 개발동향 등을 자세히 소개해 ICT 장치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는 농사로 누리집(<http://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신규 등록 한우】



【가축의 관심유발】



【사료를 먹으러 입장】

■ 국내산 풀사료, 품질 좋아졌다

- 총 7천 200여 점 시료분석, 수분 함량 낮아 사료가치 월등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올해 전국 9개 도, 3개 광역시에 소재한 977개 풀사료 경영체에서 의뢰받은 총 7천 196점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이전보다 수분 함량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 올해 겨울 사료작물의 평균 수분 함량은 30.1%로 2015년 37.3%, 2016년 36.1%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 특히 겨울 사료작물의 80%를 차지하는 이탈리아라이그라스의 수분 함량은 지난해(34.2%)보다 7.7% 줄어 26.5%를 나타냈고, 귀리는 지난해(57.4%)보다 23.3% 낮아져 34.1%까지 줄었다.
- 수분함량과 상대 사료가치, 조단백질, 조회분을 평가하는 유통 풀사료 등급 판정 결과에서도 A등급 비율이 17.9%로 지난해 2%보다 크게 증가했고, C등급은 지난해 22.7%에서 13.8%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 농촌진흥청은 고품질의 국내산 풀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근적외선분광법자료를 구축하고 확장해 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풀사료 품질 검사 및 등급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풀사료 품질 분석 기관인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품질 분석과 기기운용 교육을 실시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도시텃밭의 건강한 겨울나기, 지금 시작하세요

- 겨울철 재배 가능한 작물과 텃밭관리 정보 제공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겨울철에도 간단한 보온만으로 재배 가능한 작물에 대한 정보와 수확이 끝난 도시텃밭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 겨울철 텃밭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로는 추위에 강한 봄동·월동 시금치·갯·유채·달·아욱 등이 있다. 가을작물 수확 후 씨앗을 뿌려놓고 자라는 대로 속아주면서 수확할 수 있다.
- 땅의 온도가 너무 낮아 씨앗이 발아를 하지 못할 경우 씨앗을 뿌린 후 흙으로 1cm 정도 덮은 다음 흙을 신문지나 부직포로 다시 덮어주면 싹을 틔울 수 있다.
- 겨울텃밭을 위해 밭 주변에 나무판이나 돌레를 치고 그 위에 비닐과 부직포 등 보온자재를 덮어줘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낮에는 비닐만 덮어 작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밤에는 보온을 위해 부직포나 천으로 덮어준다.
- 옥상텃밭에 나무 플랜터나 화분으로 기둥을 세우고 비닐을 덮는 것도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 겨울철에는 작물의 생육이 느리고, 일교차로 인해 수분이 형성 되기 때문에 물주기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나치게 흙이 마른 경우에는 맑은 날 오전에 잎이 젖지 않도록 토양표면에만 물을 주면 된다.
- 도시텃밭은 11월 수확 후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듬해 병해충의 전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반드시 뒷정리가 필요하다.

- 고추·토마토 등에 사용했던 지주는 모두 뽑아 흙을 털어 비가 맞지 않게 보관한다. 호미 등 농기구도 잘 닦아 말려두어야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특히 박·여주·수세미·콩 등 덩굴성 작물들은 말라죽은 잎과 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듬해 제거하기도 어렵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지대, 그물망까지 모두 정리해야 한다.
- 텃밭에서 나온 식물체의 부산물은 퇴비를 만들기도 한다. 주말 텃밭에서는 식물체를 모아 한곳에 쌓아두고 미생물제 등을 섞어 비닐을 덮으면 겨우내 퇴비화가 이뤄져 이듬해 좋은 밑거름이 된다.
- 토양에 잡초제거를 위해 덮어 두었던 비닐, 부직포, 신문지, 골판지 등 피복자재는 토양해충의 좋은 월동처가 되기 때문에 걷어내야 한다.
- 텃밭작물 재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http://www.nihhs.go.kr>) → 일반인을 위한 정보 → 텃밭 가꾸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비닐 및 부직포 덮기를 이용한 작물재배】

6

정책 동향



■ 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및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목돈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주 중 『일시인출형』 과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을 출시한다.
-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자녀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 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수령 기간(5·10·15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들을 위한 상품이다.
-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하여 가입 하되,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하는 것이 다른 점인데,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장점이 있다.
- 또한,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관련 제도도 개선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다음 주 중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권 등의 대출을 위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채권 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 연령도 현행 65세 이상(가입시점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농지연금은 농가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령 영세농의 저소득 문제 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농업인(만 65세 이상)들이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금리인상 추세 등을 감안하면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 “2016년 말부터 지속되는 금리인상 추세와 더불어 올해 들어 시장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농지연금의 대출 이자율은 2%로 동결한 만큼 고령의 농업인들에게는 올해가 농지연금 가입의 적기”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 발령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환절기 및 겨울철(11~4월)에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PED)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13일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돼지유행성설사(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구토와 수양성설사가 특징적인 증상으로, 특히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높은 폐사율(50~100%)을 보이며, 매년 겨울철에서 봄철에 유행하여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 '17년 발생건수 : (1월)5건 → (2월)8건 → (3월)17건 → (4월)11건 → (5월)10건 → (6월)11건 → (7월)7건 → (8월)3건 → (9월)5건 → (10월)1건
-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돼지유행성설사의 예방을 위하여 양돈 농가에서 어미돼지에 대한 PED 백신접종, 방문자 및 가축운반·동물약품 등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심축 발생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1588-4060, 1588-9060) 신고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AI 차단 위해 위험지역 가금농가 사육 제한

- 전남도, 나주·장흥 등 27농가 지정해 휴업 보상 -

-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 가금농가 피해는 물론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위험지역 오리농장의 사육을 제한키로 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 농가 및 주변 500m 이내 농가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 27호(나주 6, 장흥 5, 해남 2, 영암 14)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 사육 제한 농가에는 4개월간 휴업 보상을 위해 과거 1년간 평균 사육 마리당 510원(2회분)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 전라남도는 사육 제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생산자단체, 계열사와 협의회를 개최해 사업 필요성을 홍보하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1일부터 휴지기를 시행했다. 2018년 2월까지 대상 농가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육 제한 이행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는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모든 시군에 방역대책상황실 총 27개소를 운영,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AI 반복 발생 등 위험지역 9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오리류 유통 금지, 오리농장 입식 사전 승인제 운영 등 심각단계에 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 내달 6일까지 농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받는다.
- 신청 가능한 비료는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 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 비료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다음 달 6일까지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유기질비료의 경우 2600원,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등급에 따라 1600~22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비료는 신청 시 선택한 농협을 통해 내년 2월부터 공급된다.
-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 정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 한편 여수시는 올해 19억 2000여만원 상당의 유기질비료 90만 6000포를 농가에 공급했다.

* 출처 : 여수시

■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퇴비 공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357농가에 18,200포 무상 공급 -

- 광양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퇴비를 농가에 공급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는 하루에 발생하는 약 46톤의 음식물 쓰레기와 1등급 톱밥을 주원료로 사용해 철저한 선별과 발효, 후복숙, 자연부숙을 통해 최종 생산하고 있다.
- 이번에 생산된 음식물 부산물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한 2등급 비료로 철저한 공정관리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 포장된 퇴비는 기존 가격인 1포(20kg)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포장되지 않은 상태인 벌크는 기존 kg당 35원에서 5원으로 가격을 낮춰 공급하고 있다.
- 또 오는 12월 1일까지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판매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357농가에 농가당 50포씩 총 18,200포를 무상으로 공급 할 계획이다.
- 음식물 부산물 퇴비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과 (☎797-3340)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광양시



■ 담양군, 2017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수매

- 매입물량 포대벼 199,542포, 산물벼 25,317포 등 총 224,859포 -
- 담양군은 6일 담양읍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2017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수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군의 매입품종은 『새일미』와 『신동진』이며, 올해 매입물량은 건조벼 199,542포, 산물벼 25,317포 등 총 224,859포로 약 8,995톤이다.
- 올해 수매대금은 작년과 다르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확정 매입가격이 일시에 지급될 예정이다.
- 또한, 담양군은 영세고령 출하농업인 포대벼의 하역과 적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담양군농업경영인회 협조로 하역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수매진행과 복지농업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출처 : 담양군



■ 보성군, 보성쪽파 김장철 맞아 수확 한창

- 입동이 지나고 본격적인 김장철이 돌아왔다. 지난 9일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구룡마을에서는 김장용 쪽파 수확이 한창이다.
-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해 웰빙채소로 인기가 있는 보성쪽파는 득량만 해풍을 품고 자라 그 맛이 독특하다.
- 또한, 비옥한 황토 흙에서 자라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감기 예방에 좋다.
- 특히, 항산화 효능도 있어 암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해 변비 예방과 개선, 피로회복에도 좋으며 각종 요리의 잡냄새를 제거해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다.

* 출처 : 보성군



■ 장흥군, 사람 10명 못 하는 양파이식기 시연

- 장흥군(군수 김성)은 7일 관산읍 죽교마을에서 양파재배농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이식기를 이용한 농기계 정식 시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시연회는 양파 재배기술교육, 포트모 재배포장 견학과 양파 이식기를 이용한 정식 시연 및 체험으로 진행됐다.
- 양파이식기는 사람 10명의 작업량을 대체할 수 있어 인건비를 9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 최근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 지역에 도입될 경우 이식비용 절감은 물론, 적기 정식이 가능해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양파이식기를 임대하고 있다”며 “농업기계 임대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장흥군



■ 해남군,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실시

- 해남군은 관내 한·육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 이번 일제검사는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8개 채혈반을 편성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1,437농가의 1년 이상 한·육우 암소 2만 1556두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 소 브루셀라병은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써 가축시장 등에 거래하거나 도축장 출하 시 반드시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토록 의무화 되어 있다.
- 또한 양성 가축이 발생하면 사육 중인 농장 가축에 있어서는 이동 제한명령을 실시하고 2회 이상 추가 재검사를 실시 후 살처분을 하게 된다.
- 채혈을 기피하는 등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시 보상금 하향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브루셀라는 감염 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검사와 함께 사전 예방을 위해 축사 청결 유지와 주기적인 소독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염병 의심가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신고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해남군

■ 장성군, 광주농산물유통센터서 농·특산물 전시 판매

- 장성군은 9~12일 농협광주농산물유통센터에서 『옐로우시티 장성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했다.
- 행사에선 사과·단감·대봉·새송이버섯·깻잎 등이 팔렸다. 모두 장성이 자랑하는 명품 농·특산품이다.
- 이번 행사에선 일반 사과와 함께 우박 맞은 사과도 판매한다. 쌀도 인기를 끄는 품목이다. 『365생』 브랜드로 팔리는 장성 쌀은 전남농업기술원이 고시히까리와 온누리 품종을 교배해 만든 조명1호다. 장성군의 새로운 명품 브랜드 쌀 육성 품종으로 식감이 찰지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최고 품종이다.
- 전남 최고의 감 재배지답게 단감과 대봉 역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 일교차가 큰 곳에서 서리까지 맞으며 자란 덕분에 다른 지역 감보다 씨알이 굵고 육질이 뛰어난 건 물론 비타민C도 풍부하다.

* 출처 : 장성군



8 해외 농업정보



■ 미국, FDA 글루텐프리 제품 표기 규정 준수 검사

- 미 식품의약국(FDA)은 2013년 8월 『글루텐 프리(Gluten-Free)』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식품의 라벨 표기를 가능하도록 했다. 최종 규정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 2014년 8월 5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 글루텐 프리 제품의 조건
 - 근본적으로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 글루텐이 함유된 곡류 구성분이 없는 제품
 - 글루텐이 함유된 곡류에서 추출돼 글루텐 제거 공정을 거치지 않는 구성분이 없는 제품
 - 글루텐이 함유된 곡류에서 추출돼 글루텐 제거 공정을 거쳐, 해당 식품의 글루텐 함유량이 20ppm 미만인 제품
- 위의 조건에 따르면, 완전히 글루텐이 제거되지 않은 제품이어도 20ppm 미만의 함유량이라면 글루텐 프리라고 라벨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FDA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는, 제품 공정 과정에서 글루텐 프리 제품과 글루텐이 포함된 제품 또는 구성분이 접촉하게 되면, 이를 통해 글루텐이 미량 함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최근 FDA는 이처럼 공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접촉(Cross Contact)』의 위험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초 FDA는 공식적으로 글루텐 프리 제품에 대한 샘플링 및 규정준수 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글루텐 프리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시사점으로 글루텐프리 제품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관련 규제도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 FDA가 글루텐 프리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보다 꼼꼼한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고한 만큼, 미국시장에 글루텐 프리 제품을 판매하는 한인기업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아마존닷컴에서 판매 중인 글루텐프리 한국식품】

■ 뉴질랜드, 과일과 야채 부족에 직면

- 뉴질랜드의 신선한 청과물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원예국은 앞으로 국내에서 재배된 식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최근 날씨 패턴의 변화와 계절에 맞지 않는 기상 현상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해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의 가격과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뉴질랜드 원예과는 과일 및 채소 공급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국내 식량 공급을 면밀히 검토하고, 뉴질랜드 식량 공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도시 및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인구에 식량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 시사점으로 뉴질랜드는 선진 농업국으로 국토의 약 50% 정도가 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중 50%가 과실류 재배 면적이며, 최근 도시화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와 불안정한 날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뉴질랜드는 신선농산물 수입이 제한적인 국가로 한국의 경우 포도와 배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포도는 현지에서 유통되는 포도와 품종이 다르고 당도가 높으며, 배의 경우 로컬 경쟁 품목이 없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11. 13. 시카고 선물거래소]

□ 미 농무부 보고 이후 숯 커버링으로 상승한 밀·옥수수·대두 선물가격

○ 밀 선물시장 시황(▲0.6%)

- 밀 선물가격은 숯 커버링과 옥수수 선물가격의 상승세에 영향을 받으며 전일 대비 0.6% 상승하였다. 금주의 밀 선물가격은 1.4%의 주간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9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다.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0.6%)

- 옥수수 선물가격은 숯 커버링과 기술적 매수세로 인해 전일 대비 0.6% 상승하며, 하락세에서 반등하였다. 한 주 동안 옥수수 선물가격은 약 1.4%의 주간 하락을 보였고, 이로 인해 2주째 연속 주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 대두 선물시장 시황(▲0.2%)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의 가파른 하락세에 이어 기술적 매수세로 인해 전일 대비 0.2% 상승하였다. 대두 선물가격의 경우 한 주 동안 주간 변화율은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11월 이달의 6차 산업인, 농업회사법인(주) 안복자한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1월의 6차 산업인으로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의 농업회사법인(주) 안복자한과 안복자 대표(만 63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생산(1차), 제조가공(2차) 및 유통·체험·관광 등 서비스(3차)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 우수경영체를 『이달의 6차 산업인(人)』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 농업회사법인(주) 안복자 한과는 2001. 1. 10. 대한민국 식품명인인 안복자 대표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모든 한과제조 공정을 전통 방식에 따르고 있으며, 자신의 얼굴을 상표에 표시하는 『성명 마케팅』으로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등 한과의 세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안복자 대표는 한과의 재료인 쌀·밀·참깨 등 모든 농산물을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를 이은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중국·일본·홍콩·호주 등 7개 국가에 한과를 연간 1.5억여원 수출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6차 산업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쌀,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서 전국 최고 인정

- 곡성 백세미 국회의장상, 영광 고시히카리 농관원장상 수상 -
- 전라남도는 2017년 전국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서 곡성 석곡농협의 백세미 쌀이 국회의장상, 영광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고시히카리 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 전국친환경농산물이품평회는 생산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질 향상 및 소비 확대를 위해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농협경제지주, (사)한국유기농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지난 8월 서울코엑스에서 1차 품평회를 한데 이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품평회를 거쳐 최종 수상 제품을 선정했다. 수상 제품은 국내 유통업체 입점 혜택이 주어지고 유통바이어와 소비자 홍보 지원이 이뤄진다.
- 품평회는 곡류·과일류·채소류·가공식품 4개 부문에 275개 품목이 출품 됐으며, 전남에서는 35개 품목이 출품됐다.
- 심사위원회는 친환경농업 기관단체, 유통업계 종사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농협식품연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후 우수 제품을 최종 선발했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수상 결과는 전남 유기농 쌀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고 판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상황

- 전라남도는 11일 강진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전라남도 농업인 단체연합회(회장 정갑용) 주관으로 2017년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 기념식은 서두석 행사추진위원장의 경과보고, 농업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농업분야에서 올해의 농업인으로 선정된 농업인대상 표창패 수여, 농정평가 우수 시군 등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진 정영록 씨 등 4명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 증대에 기여한 해남 윤병옥 씨 등 5명은 전라남도 농업인대상에 선정돼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 또한 올해 농정업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흥군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해남군과 영광군이 최우수상을, 순천시·광양시 등 5개 시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
- 농업인대상 수상자는 분야별로 고소득 쌀 생산 분야에 윤병옥(해남군)씨, 원예·특용작물 분야 박태화(고흥군)씨, 유통·가공 분야에 이동현(곡성군)씨, 축산 분야 최영림(해남군)씨, 임업 분야 진철호(담양군)씨다. 1996년부터 시작한 이래 올해로 22회째 농업인대상을 시상했으며, 그동안 135명의 농업인을 발굴하여 표창했다.
- 이재영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농업과 농촌을 굳건히 지켜온 농업인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여러 국내외 여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 농촌을 살리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 가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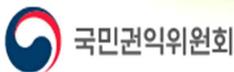
* 출처 : 전라남도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내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
됩니다



청렴 대한민국! 새롭게 시작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청탁이 통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제1항)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14가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무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 사항 묵인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법령을 위반한 영역 관여 업무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예외사항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인 특정 행위 요구, △공공기관 업무 관련 확인·문의 등 적법한 절차나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 등입니다.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회, 신뢰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8조제5항)

이런 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예외사항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159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